

회원사 탐방 - (주)비엠티



일체형 전원분배장치의 선두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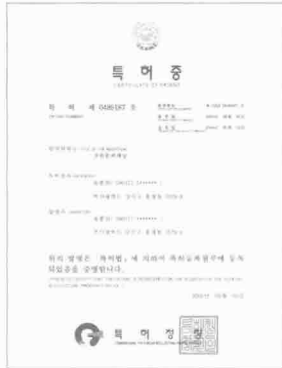
(주)비엠티(대표 윤종찬)는 1988년 설립 이후 반도체, 발전소, 조선 및 해양,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등에 사용되는 배관소재 및 밸브 그리고 전기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이다.

국내 우수 기업들로부터 TUBE FITTING&VALVE의 공식 납품업체로 지정되었으며,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인증), API(미국석유협회 인증), KHNP(한국수력원자력 Q-CLASS 등급 공급업체 선정), GL(독일선급협회 인증), DNV(노르웨이선급인증), ABS(미국선급협회 인증), Lloyd's (영국선급협회인증), BV(프랑스 선급협회 인증), NK(일본 선급협회 인증) 등을 획득했다.

또한 ISO 9001, ISO 14001과 OHSMS 18001의 품질 및 환경 안전 시스템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대내외 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자사브랜드인 'SUPERLOK' 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켜 전기, 계장 및 플랜트 분야의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엠티는 2005년부터 일체형전원분배 단자대 개발을 완료해 출시하면서 전기업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분전반의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수배전 설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의 분배전반에 사용되는 부스바를 절연케이스 내에 일체 화함으로써 편리함과 신속성, 전기적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향상시킨 획기적인 조립형 제품으로 선진 미래 지향적이다. 또한 일체형 전원분배 장치는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제품자체로도 판매가 가능하고 A/S 까지도 가능한 제품이다.

분전반 시장의 혁명을 일으킨 'MC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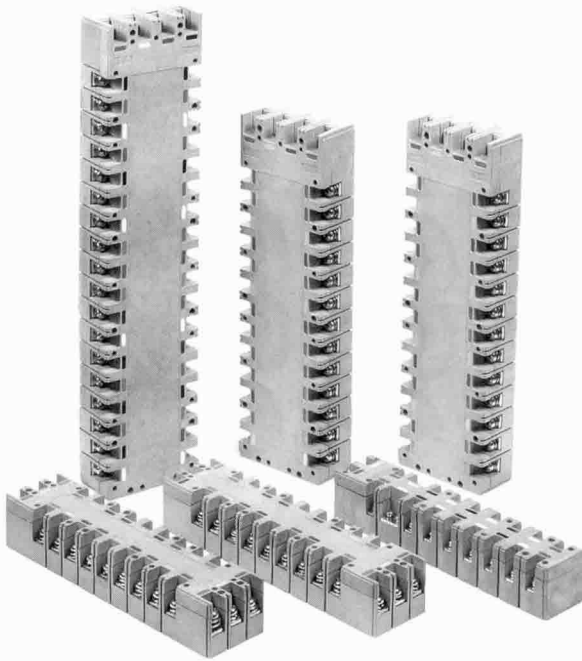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비엠티는 쿠웨이트 KPPC社의 슈에이바 산업단지 내 AROMATICS COMPLEX PROJECT 공사를 진행 중인 (주)SK건설을 통해 수주한 약 10만불 상당의 분전반 납품을 올해 2월 초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분전반 입찰은 쿠웨이트 현지에서 요구한 까다로운 조건 하에 진행되었으며, 그 동안 일체형 전원분배장치(이하 MCPD) 개발에 꾸준히 기술 투자한 비엠티가 수주했다.

이미 신제품, 전력신기술, 조달청 우수제품 등 국내의 주요 인증을 대부분 확보한 비엠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KESCO-V-Check Mark까지 확보하였고, 유럽·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플랜트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네덜란드 전기시험소의 KEMA Quality B.V.의 인증까지 획득했다.

KEMA Quality 社의 단전류 시험(Short-Circuit Withstand Test)은 비엠티의 60sq 부스바 용량으로 진행됐으며, 1차 테스트는 국내의 7,200A/1초보다 높은 10,000A/1초를 통과하였고, 2차에서는 25,000A/0.1초까지 통과했다





이 테스트의 의미는 만일의 사고 시 분전반의 주 회로를 통해 단시간 과전류가 흘렀을 때도 비엠티의 MCPD 부스바는 그 용량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견뎌 그 어떤 방식보다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또한 비엠티는 사막의 극심한 미세먼지나 바람 그리고 불규칙한 기후의 변화에 따른 빗물 등의 누수에도 거의 완벽한 회로 보호 기능을 갖춘 분전함까지 개발, KEMA의 IP54 (Ingress Protection 54) 단계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는 비엠티의 MCPD가 세계의 중요하고 특수한 플랜트 시장도 공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분전반 시장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비엠티는 이번 공사에 국내 유일한 KEMA 단전류 시험 인증 및 IP54 시험 인증을 받은 분전반을 공급함으로써 향후 석유화학 등 중동을 비롯한 해외 플랜트 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주력제품인 계장용 피팅과 밸브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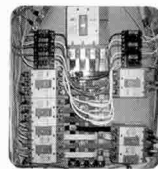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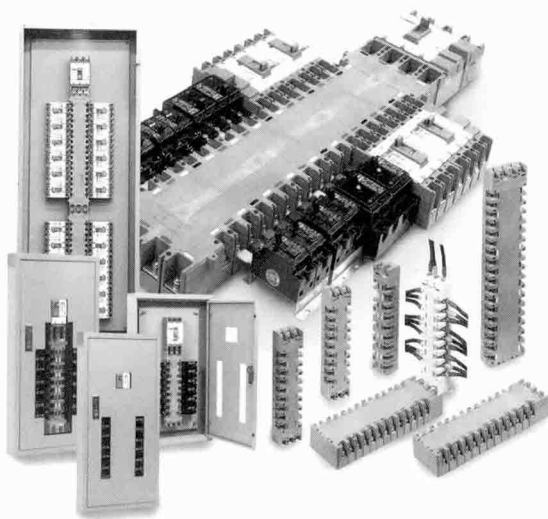
올해 매출액 전년대비 100% 이상 달성 목표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청정에너지인 전기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전기, 전력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점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분전반 및 배전반의 비표준화로 인하여 적정규격의 사용여부에 대한 검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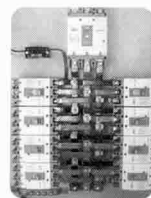
또한 노출된 부스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과 부스바의 조립상의 실수로 인한 불량 등으로 화재와 같은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면서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분전반의 제조가 요구되고 있다. 비엠티는 부스바의 모선 및 자선을 견고한 리벳으로 결합했으며, 절연 및 난연성이 뛰어난 케이스 내에 구성하여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모듈화 된 제품을 양산,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따라서 비엠티의 MCPD는 전기를 수용하는 모든 공장, 빌딩, 상가, 조선 및 산업용 등의 시설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MCPD는 2005년 특허 및 의장등록을 획득했으며, 미국, 대만, 유럽 등의 국제특허도 취득,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전력신기술 제37호 및 신제품(NEP) 인증을 취득하고 조달청우수제품으로도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에는 CE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더욱 활발한 해외시장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비엠티는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올해 매출액을 전년대비 10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MCPD 및 이와 관련한 분전반 시장의 매출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MCPD를 이용해 콤팩트하면서 사용이 편리한 분전반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형 차단기와도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도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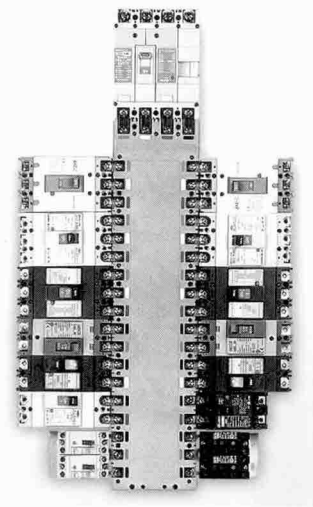
〈홍보실 양승수〉



기존시공방식1



기존시공방식2



MCPD를 이용한 개선된 시공방식